

#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약칭) 조선동아 청산 시민행동

- 참석자 소개
- 경과 보고
- 각계 발언
- 조직 구성 및 활동계획 발표
- 발족 선언문 낭독
- 질의 응답

일시 : 2019년 9월 10일(화) 오전 11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1. 추진 경과 보고

## 1) 집담회

※ 참여단위: 자유언론실천재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주권자전국회의 등

※ 자유언론실천재단 조선동아 창간 100년 대응 기획팀 구성(기획팀장 새언론포럼 조성호)

○ 1차 집담회: 2019년 7월 8일, 언론노조 회의실

· 참석: 새언론포럼 조성호 위원/강성남 회장, 동아투위 문영희/조강래 위원, 김종철 위원장, 80년해직 김준범/유숙열 공동대표, 동아투위 문영희 전 위원장, 조선투위 신흥범 전 위원장, 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박강호 상임이사 등

· 논의 내용: 조선·동아일보 창간 100년에 앞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단체를 결성해 이들의 거짓 보도와 홍보 행사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 2차 집담회: 7월 16일, 언론노조 회의실

· 참석: 80년해직 고승우/김준범 공동대표,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박강호 상임이사, 언소주 서명준 대표/이태봉 사무처장, 동학실천시민행동 이요상 상임대표, 조선투위 신흥범 전 위원장, 동아투위 조강래 위원, 새언론포럼 조성호 위원, 주권자전국회의 최병현 기획위원장, 언론연대 최성주 공동대표, 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 송현준 수석부위원장, 윤석민 민실위원장 등

· 논의 내용: 활동 방향 및 사업, 조직 명칭에 대한 의견 나눔. 최근 시민사회의 이슈 공유와 주요 연대단체를 어디로 설정해야 할지 논의 함.

○ 3차 집담회: 7월 26일, 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 사무실

· 참석: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박강호 상임이사, 동아투위 박종만/조강래 위원, 조선투위 신흥범 전 위원장, 언소주 이태종 사무처장, 새언론포럼 조성호 위원, 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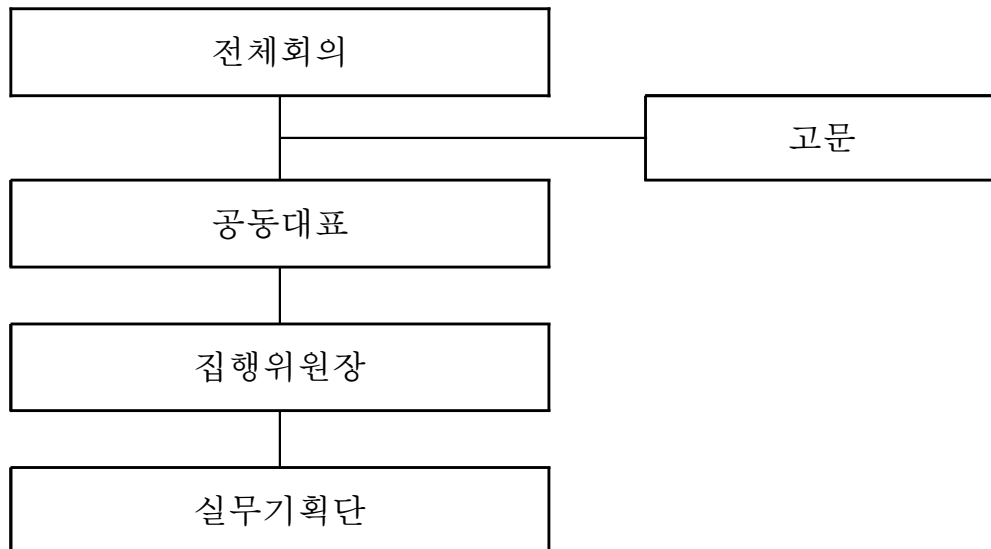
· 논의 내용: 조직 명칭, 발족 일정, 주요 사업계획 및 담당 단체에 대한 초별적인 논의 진행.

## 2) 기타 사항

○ 아베규탄 시민행동, 7차에 걸친 촛불문화제 행진 마지막 코스를 조선일보(코리아나호텔)로 잡아 친일언론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임.

-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아베규탄 1차 촛불문화제(7월 20일) 친일언론 규탄 발언.
-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일보 반민족 친일 행위 규탄하는 기자회견 개최(8월 1일)
- 민언련, [토크쇼] 왜 사람들은 조선일보를 친일신문이라 하나 개최(8월 22일)
-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 아베규탄 5차 촛불문화제(8월 15일), 7차 촛불문화제(8월 31일) 발언자로 나서 친일언론 규탄 및 ‘조선동아 창간 100년 대응 연대단체’ 발족 언급.
- [미디어오늘] 9월 3일 <언론단체, 조선·동아 100년 앞두고 “거짓·위선 알릴 것” > 보도  
[미디어스] 9월 4일 <‘조선·동아 100년 청산 시민행동’ 발족한다> 보도

## 2. 시민행동 조직 체계



- 고문: 김자동(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김중배(전 MBC사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신경림(시인),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해동(목사), 임재경(전 한겨레 부사장), 함세웅(신부/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권영길(초대 언론노련 위원장)
- 공동대표: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신흥범 전 위원장,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1인, 새언론포럼 강성남 회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연우 상임대표를 공동대표단으로 하되, 참여 단체(인사)를 고려해 추가 요청.
- 집행위원장: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실무기획단: 동아투위, 조선투위,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노조, 언소주, 민언련 실무자 등 단체별 1~2인으로 구성

### 3. 시민행동 활동 목표 및 주요 사업

#### 1) 활동 목표

- 조선·동아일보의 친일, 반민주, 반통일, 반민중 행태를 폭로한다
- 창간 100년을 맞는 조선·동아일보의 과거사 왜곡 보도 및 행사를 반박하는 활동을 벌인다
- 시민과 시민사회가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한국사회가 조선·동아일보의 실체를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2) 주요 사업

※ 단체들이 조선·동아일보에 대응하는 기존의 활동을 존중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문화제, 강연, 홍보사업 진행

- 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 대중강연 <조선·동아 100년 어떻게 볼 것인가> 개최
- 8차 아베규탄 촛불문화제(친일언론 청산 주제) 주관
- 조선/동아 ‘패악 보도 10선’ 선정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주요 언론 연속기고 및 인터뷰
- 단체/시민 찾아가는 강연
- 조선·동아일보의 창간 100년 관련 보도·행사 모니터링 및 대응
- 2020년 초 조선·동아 청산 연속 학술대회·대중집회 및 문화제 개최
- 언소주의 ‘조선일보 광고주 불매 리스트 발표’ 를 동아일보로 확대
- 민언련의 ‘조선일보 100년 거짓보도 100년’ 아카이빙 동아일보로 확대
- 친일·독재 부역 언론인 명단 발표
- 동아 백지광고 및 안티조선 선언 참여 시민 찾기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 발족 선언문〉

## 거짓과 배신의 100년을 심판할 것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신문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은 지금껏 단죄된 적 없고 당연히 청산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민족을 배반한 친일 DNA는 대대로 유전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도 아베 신조의 경제침략에 부화뇌동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독재정권에 부역하던 습성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져 시민촛불혁명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간교한 계획을 꾸며대느라 분주하다. 일제와 독재에 충성한 대가로 얻은 부(富)는 족벌 경영의 물적 토대가 되어, 호텔이며 각종 재단이며 방송사까지 소유하게 만들어 그 후손들의 배를 더욱 불러주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오욕의 역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오늘 57개 단체는 분연히 일어서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의 발족을 알린다. 우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나아가 사주 일가의 죄를 역사 앞에 낱낱이 고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을 것이다. 100년을 이어 온 이들의 패악을 멈추게 할 것이다.

2020년 3월과 4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창간 100년을 자축하며 스스로의 친일 역사를 운색 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다. ‘시민행동’은 이들의 친일-반민족 보도를 널리 알릴 것이다. 이들의 과거 친일 행각을 우리가 다시 들추어내는 까닭은 한일 양국 간 경제전쟁 시국에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이에 편승해 증오를 확산하는 데에 있지 않다. 양국의 언론은 오로지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본령, 보편적 인류애와 인권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에 대한 반성과 냉철한 비판으로 사태의 본질을 좇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짐짓 ‘이성을 찾으라’며 훈계하듯 덮어놓고 화해를 종용하고 있는 조선-동아일보의 태도는 단지 ‘친일’ 이어서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성노예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권 범죄에 눈감고 인류의 진보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더욱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또 군사독재와 지금까지 이어진 반민주, 반노동,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려는 이들의 행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언제 하루라도 진실만을 말하고 정론을 펼친 적이 있었던가.

1975년 동아일보에서 강제 해직당한 동아투위는 지난해 결성 43주년을 맞아 ‘한 세기 동안 민족을 속여온 동아일보 차라리 폐간하라’는 경고장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해직 당한 조선투위는 지난 8월 1일 조선일보 앞에서 ‘친일언론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조선-동아일보는 이들의 목소리를 자신들의 회사에서 쫓겨난 일부의 ‘소란’으로 폄훼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동아일보의 패악질에 대한 규탄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조선·동아일보는 ‘반성 없이는 용서도 없다’ 는 진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시민행동’ 은 과거의 역사 왜곡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조선·동아일보로 대표되는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시민의 명령인 언론개혁을 완수할 것을 준엄히 촉구할 것이다. 정치권력과 결탁을 넘어 스스로 ‘권력을 창출할 수 있다’ 고 믿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휘둘러온 이들의 ‘패악 보도 10선’ 을 선정하고, 자본 권력과 결탁한 반노동반민중 보도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광고주 불매 리스트’ 를 확대 발표할 것이다. 45년 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에 격려광고 운동으로 동참했던 정의로운 시민들, ‘안티조선’ 운동에 함께했던 시민을 찾아 당시의 뜻을 되살릴 것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시민이 언론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대중강연과 촛불문화제를 기획해 오직 시민의 힘으로 언론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오늘 ‘시민행동’ 의 발족은 역사를 바로세우고 언론을 바로세우는 것만이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절박한 호소이자 선언이다. 불의에 맞서는 언론,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은 쓰지 않는 언론, 진리의 눈을 들어 진실만을 말하는 언론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2019년 9월 10일

##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월혁명회 새언론포럼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시민연대 함께 시민채널 언론 소비자주권행동 우리역사학당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선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친일청산국사복원시민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 연구원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충북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민족문제연구소 (57개 단체)

[별첨]

## 1974~5년 동아광고탄압 격려광고 참여 시민모임 발기인 162명으로 발족, 익명의 격려광고인 결집나서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 100년청산 시민행동은 1974~5년에 걸쳐 있었던 유신독재정권의 동아 일보에 대한 광고탄압에 맞서 격려광고로 백지광고면을 채웠던 시민모임의 발기인 162명 명단을 최종 확인 중에 있다.

부문별로는 ▲개신교 이해동 원로목사를 비롯한 62명, ▲가톨릭 사제단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44명, ▲문인 신경림 시인을 비롯한 40명, ▲재야 백기완 선생을 비롯한 16명으로 모두 162명이다.

앞으로 발기인들은 1974~5년에 걸쳐 동아일보 백지지면에 물려들었던 ‘민주의 함성’ 격려광고의 주인공들인 익명의 시민들—중고대학생, 가정주부, 상인, 공무원, 노동자, 농민에게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여론의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록 45년 전에는 무시무시한 유신독재의 서슬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었지만 그들의 익명의 민주함성이 촛불시민혁명의 첫 번째 촛불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유언론을 배신하고 유신독재에게 투항한 동아일보 사주에게 사죄를 요구하고 자유언론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의 자유언론을 응원하고 민주화의 열망을 발산했던 익명의 격려광고 주인공들은 자유언론실천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란다.

자유언론실천재단 사무국장 이영순 [freemediaf@gmail.com](mailto:freemediaf@gmail.com)

동아광고탄압 격려광고 참여시민모임 발기인 162명(확인 中)

- ◎ 재야 : 16명
- ◎ 개신교 : 62명
- ◎ 가톨릭사제단 : 44명
- ◎ 문인 : 40명